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2년도  
제6호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몸을 피해 쉴 곳을 찾았고,  
가축의 여물을 담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빛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5년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중에서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일 바이에른과 티롤, 그리고 스위스에  
서는 대림 시기를 맞아 행하는 오래된 풍  
습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노크’하는 풍습으로, 어린아이  
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림과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작은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일에  
쓸 기금도 모금합니다. 이 풍습의 독특한 점은 ‘노크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서로 시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노  
래를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서 목을 곳을 찾아다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재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거룩한 아기가 초라하게  
거부당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  
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  
던 것이다.”(루카 2,7)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요한 1,11) 그런데  
도 그분은 우리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만족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어둡고 좁은 마구간에서 환하  
게 빛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그림자  
는 더 선명해지고, 우리 상처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세상  
의 불행은 더 끔찍하게 보입니다. 거룩한 빛은 우리가 우  
리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망가뜨렸던 것들을 고스란  
히 드러냅니다. 인간관계와 가족 안의 외로움과 냉담함  
을 목격하게 합니다. 또한 이 빛은 수많은 사람이 겪고 있  
는 비참한 빈곤, 박해, 전쟁과 재난을 눈앞에 또렷이 보여  
줍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시지만, 이는

심판이 아니라 치유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빛은 어둠 앞에서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더 환하게, 더 기쁘게, 더 헌신적으로 만듭니  
다. 가장 누추한 곳과 어두운 밤을 환한 천상의 빛으로 변  
화시키는 힘을 지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타오  
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한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  
습니다. 이는 성녀 마더 데레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촉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온갖 어둠을  
밝힐 수 있는지 성녀 마더 데레사는 아름다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함석과 낡은 골판지로 된 오두막에 살던 한  
남자를 방문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추한  
그의 방을 청소하고 나서 모퉁이에 놓인 커다란 먼지투성  
이 등을 발견하고 물었지요. ‘이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  
세요? 이렇게 예쁜 등을?’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등을 끈단 말이요? 몇 달째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수녀님들이 찾아오면 등을  
켜시겠어요?’ ‘그러죠.’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수녀님  
들이 매일 그 남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녀  
님들과 함께 매일 등을 켜지요. 수녀님들은 시간을 두고  
서 서서히 방문 횟수를 줄여나갔어요. 2년이 지나서 그 남  
자가 한 수녀님을 통해 내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내 친  
구 데레사 수녀님에게 전해 주시오. 수녀님이 내 안에 밝  
혔던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말ियो.’”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빛으로 가득한 성탄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Fr. Martin Maria Barta

직 활동 현장 등에서 여성 수도자들이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적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 말씀의 씨앗이 비옥한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 전례에 열  
정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가 앞으로 자기 삶을 자국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레바  
논과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속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  
망을 품어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실현되려면 우리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을  
통한 연대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바로 이 시  
기에 우리는 중동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

**“세상의 빛이 마구간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레바논과  
시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그곳에서 일어나  
는 파괴, 물질적인 궁핍, 벗어날 길 없는 절망을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던지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몰  
락, 사회 기반시설의 부재, 그리고 국민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성의 징표는 늘 다시 생겨납니다.

학교, 장애인 시설, 위태로운 가정이나 청소년을 위한 사도

## 구유 앞에 무릎을 꿇다

**이번 성탄절에 ACN은 75번째 설립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75년 전,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목으실 곳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탄절에 ACN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혹독한 가난만 겪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도 식어  
갔습니다. 그래서 증오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ACN은 유럽의 그  
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7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후원자들이 이에 응답하였고, 구유 앞에 무릎을 꿇은  
목동들과 함께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후원자들은 고통받고, 박해받고, 추방  
당하는 성가정에 사랑을 선물하고, 그들의 마음이 ‘목을 곳’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후원자들은  
그 옛날 목동들과 세 동방 박사처럼 선물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미소 짓게 했습니  
다. 선물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선물과 함께 바치는 사랑만큼이나 소중합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선물과 함께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고, 덕  
분에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평화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ACN 75주년 설립일에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연약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아 마땅  
한 어린 아기로 당신을 드러내신 위대한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에 여러분을 초대하  
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가르칩니다. **“목자이든 동방 박사이든 누구나 베들  
레헴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연약한 어린 아기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경배해야  
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가톨릭 교리서 563)

**이 땅에 살아가신 후원자들, 그리고 이미 하느님 품에 안기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  
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고  
통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도움을 청하실 때, 우리는 한 번도 빈손으로 돌  
려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동일시했던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답해주실 것입니다!**







## 하느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인도 북부와 방글라데시에 사는 카시족 신자들도 이 구절에 공감합니다. 이들은 하느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성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여러분의 도움으로 카시어로 된 성경을 많은 본당 공동체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사이에 초판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신자들은 성서 사도직에 열성을 보이고, 이미 성경을 갖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경을 갖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딴 지역이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신자들만큼이나 가난해서 성경 3만 부를 지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3,000원입니다. 15,000원이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다섯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5,000원으로는 스물다섯 가정에 하느님 말씀의 빛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 성탄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시리아도 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벌써 열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예전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던 축제였다는 걸 지금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행복하게 둘러앉았던 기억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휴고 파비안 아라니즈 신부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축제이며, 이런 사실은 시리아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특히 심각한 피해를 본 알미단 지

역의 파비안 신부는 2019년부터 해마다 본당에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 성탄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ACN은 후원자분들 덕분에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후원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1,500명에 이르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얼굴을 다시 환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큰 강당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제대로 성탄 분위기를 낼 예정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성탄극을 무대에 올리고, 하느님 말씀을 낭독하고, 교리 교육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습니까?

7,000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저녁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9,000원으로 어르신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14,000원으로 어린이에게 옷을 선물해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가지는 혹독한 시리아 겨울에 당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 성탄 축제에 20,700,000원이 필요합니다. 알레포의 가난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눠 주시겠습니까? ✚

## 자전거 - 오늘날의 ‘당나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어서, 덕분에 베들레헴으로, 후에는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제와 교리 교사들이 방문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만나러 가려면 대개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수천에 이르는 가정들이 ‘마리아의 사업’ 공동체의 이른바 ‘다락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브라질의 38개 교구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대개는 젊은 교리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고,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성사와 본당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특히 시골과 가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도직 활동입니다.

사도직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신자들을 만나러 가려면 자전거처럼 기본적인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

## 교회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피에르 클라버 말고 주교는 이번 여름에 젊은 사제 네 명에게 사제품을 수여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동부에 있는 파다응구르마 교구로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새 사제들은 이미 9월 초부터 외딴 시골 마을과 가난한 지역의 교구 공동체에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열성과 의욕에 넘쳐 있지만, 적절한 이동 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구의 회계 담당자인 야콥 롬포 신부가 걱정하며 전한 말입니다. 할 일은 많고, 본당공동체의 규모도 큼니다. 본당에서 70km까지 떨어진 마을들이 적지 않은데다, 도로 사정도 형



다. 브라질의 7개 교구는 더 많은 가정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 ‘다락방’ 활동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전거 380대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한 대 가격이 110,000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여가를 희생하는 젊은 평신도 선교사에게 누가 자전거를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

편없습니다. “이곳 사정을 고려하면 오토바이가 가장 적합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우리는 이 사제들에게 오토바이를 사 줄 여력이 없습니다.” 롬포 신부의 설명입니다. 혹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요청에 긍정적인 응답이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롬포 신부는 겸손하게 덧붙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 가격은 4,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6,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115명이 각각 140,000원씩 기부한다면, 젊은 사제 네 명에게 각각 오토바이 한 대씩을 성탄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중동 지역

## 감옥에서 알게 된 하느님 사랑

“오시어 어둠 속에 묶인 채 앉아 있는 이를 옥살이에서 꺼내주소서.”  
대림 시기 동안 교회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는 악의 구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범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를 특히 잘 이해할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구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살레시오회 소속 게오르그 파탈 신부는 수년 전부터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수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죄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죄수들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모습에 게오르그 신부는 항상 감동합니다. 5년 형을 선고받은 25세 청년처럼 이렇게 말하는 수감자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오게 된 걸 하느님께 감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니까요.”

20년 전, 살레시오회는 교정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게오르그 신부는 이렇게 말하며, 한때 범죄자였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해합

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셔서 내게 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게오르그 신부와 조력자들은 한 달에 두 번 교도소에서 세 시간 정도 사목활동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사가 있고, 미사가 끝나면 수감자들과 면담이 이어집니다. 수감자들이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성탄절 같은 축제일에는 미사 후에 음악과 선물을 준비해 작은 파티를 엽니다. 이런 날에 감동하지 않는 수감자가 없지요.

우리는 수감자들이 하느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게오르그 신부의 이 뜻깊은 사도직에 5,900,000원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오르그 신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



## 미래가 없는 젊은이

레바논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국에서 미래를 찾지 못합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더 나은 삶을 펼치기 위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저 떠나길 원합니다.

이들의 조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연일 치솟고, 전력 공급은 기껏해야 하루 한두 시간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만연하는 우울감에 맞서 가톨릭 대학의 영성 지도 사제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바로 이런 시기에 레바논을 떠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의 해외 이주로 인해 그리스도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영성 상담, 그리고 다른 청년 신자들과 함께 성체를 모시면서 학생들은 신앙 안에서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레바논에서의 그리스도교 존속이 달린 일입니다. 레바논에서 그리스도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레바논의 가톨릭 대학과 공립대학 사목활동을 위해 총 117,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증가하는 온라인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누가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경 지원 하느님 말고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ACN은 43년동안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를 발행해왔습니다. 이 어린이 성경은 193개 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5,140만 부 이상 배포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입니다! 몇 달 전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어린이 성경 4만 부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중 3만 부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나머지 1만 부는 서유럽 국가에서 지내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마르코 복음을 3만 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어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 말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이 두 가지 요청을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많은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 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보답해주실 것입니다! ✚



##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전달된 말씀, 위로와 치유의 힘 되길

ACN 한국지부 ·  
가톨릭평화방송, 우크라이나에  
‘어린이 성경’ 지원

ACN 한국지부는 2022년 전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픔의 땅 우크라이나에 어린이 성경 4만 부와 마르코 복음 3만 권을 지원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은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관련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ACN 한국지부 사무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ACN 후원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하느님 사랑과 자비!

달력을 보고서야 입동(立冬)이 지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별과 단풍이 좋은 늦가을이라 여겼는데 겨울로 들어서서 길목에 서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애뜻하고 쓸쓸합니다. 한 시절을 보내는 마음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을 얻고 채워 넉넉한 것인지 또 무엇을 잃고 놓치어 헛헛한 것인가를 살짝 들여다봅니다.

물론 잔인한 세월에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인 노안(老眼)으로 돋보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펴보려면 적당한 거리감을 맞추려는 안경을 찾기보다 '신앙의 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마르10,51)라고 외쳤던 예리코의 눈먼 이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oculusecordis)인 '신앙의 눈'도 감히 주님께 청해봅니다. 예리코의 키 작은 세관원 자캐오처럼 말입니다. 사랑받을 때,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신앙의 눈'이 따로 있듯이 자캐오가 나무에 올라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먼저 주님께 그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2세기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성 빅토르의 리카르도(Richard de St. Victor)의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문다(Ubi amor, ibi oculus)"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어떤 확신의 경지로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추상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애매모호하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눈'을 주십사 주님께 청하며, 그 '신앙의 눈'을 부릅떠 신앙인으로서 제가 하느님 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살펴봅니다. 전 세

계의 고통받는 교회를 돕고자 모금을 사제직무의 중심에 두고 있는 제 마음이 과연 '사람의 일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더 생각했는가'(마태 16,23 참조)를 회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7년, 제1차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하시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하신 강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우리가 누구인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구원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얻기 위해 베풀 것인가?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루카 12,21 참조)고 하겠습니까."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무엇을 얻고 채웠는가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바를 누구와 어떻게 나누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눈'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회심할 수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치 이념과 종교가 달라 박해받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인 억압과 불의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뿐입니다.

점점 잊혀지는 미얀마,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성직자·수도자·평신도에 대한 납치 및 살인이 더욱 만연해 가는 나이지리아, 자연재해와 경제 파탄으로 허덕이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그리고 난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시리아와 레바논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닌 사랑의 눈길이 따스한 손길로 이어지길 저 또한 회심 속에 기도합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